

# 문화로 새 역사 창조

### “21세기는 문화산업이 국가경제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일찍이 '세계 최고 경영의 대가이자 사회사상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피터 드러커(1909. 11. 19. ~ 2005. 11. 11.)가 말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의 예견대로 지금은 문화가 경제인 시대다.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발전에서 문화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2년 기준 세계 문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조4천억 달러로 5.2%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세계 전체 경제시장 성장률 3.2%보다 훨씬 빠른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각 나라마다 저마다의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문화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노력을 쏟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각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다. 지역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수익 창출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역사와 문화의 샘물, #은

정음은 문화와 역사 자원의 보고(寶庫)다. 우물井 고을 邑, 즉 정음(井邑)이라는 지명처럼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역사와 문화, 예술의 향기가 끊임없이 솟아난다. 동학농민혁명과 백제가요 정음사, 호남우도농악의 발원지이자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고장이고 민족종교인 증산교와 보천의 본향이기도 하다. 공식적으로 지정된 유형 문화재만도 116건(국가 17, 전북도 68, 전통신할 10, 향토문화유산 13, 등록문화재 8)에 달하고 지역 곳곳에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선 7기 정음시는 이처럼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과 역사, 즉 구슬을 한데 모으고 정성껏 꿰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보배로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다. 정음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 거구기와 함께 '2019~2020 정음방문의 해' 등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노력 등을 통해 시민 소득을 피하고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전봉준 고택지

#### 문화·역사 자원 보고로 호남우도농악 발원지이자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지역자원 고부가가치화 노력

행정력을 쏟고 UCC 제작이나 혁명 유적지의 수화여행과 현장학습 프로그램 포함 등 청소년 대상의 선양사업도 강화한다. 유 시장은 "혁명선양 사업 일환으로 오는 24일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음동학마리톤대회'가 열리고, 시에서 제작을 지원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특별기획 드라마 '녹두꽃'이 4월 중 방영 된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수제천(壽濟天), 정음 문화의 힘! 수제천(壽濟天)의 본래 이름은 '정음'이다. 백제가요 '정음사'에서 출발,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에는 궁중제례 때 연주했다. 1970년 프랑스 파리의 제1회 유네스코 아시아 음악제 전통음악 부문에서 최우수 악곡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아악의 백미로 꼽힌다. 시는 수제천을 올 한해 '정음 수제천'으로 브랜드화 하는 한편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또 수제천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세계문화유



정음 수제천



동학마리톤대회



태산선비원 조감도



정음시문화제-여인제례

산 등재를 위해 힘을 행정력을 모으는 방침이다. 특히 정음 문화 브랜드 대표 공간이자 현대적 예절·풍류문화 확산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정음 수제천원'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최치원과 정극인의 숨결을 옷으로... 태산선비원 칠보면 무성리 일원 4만2,492㎡ 부지에 연면

적 3천㎡의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 선비원(이하 태산 선비원)'을 조성한다. 선비 체험관, 한옥 체험관, 자장거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공되면 청소년부터 성인을 아우르는 선비문화 교육와 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김명관 고택과 한옥체험관, 구절초 축제장 등 인근 관광 명소와 연계해 사계절 특화할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 부지를 문화시설지역으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했고, 행안부의 중기투자계획 심사를 거쳐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매입, 실시 설계 등 사업 추진에 나선다.

#### ▲아는 만큼 보인다... 정음 역사 알리기 종합마케팅 박차

앞서 언급했듯이 정음은 역사문화의 화수분 같은 곳이다. 시는 올해 특히 정음의 이러한 역사문화 알리기에 주력한다. 전국 청소년 대상의 '정음역사 알리기 종합 마케팅'이 대표적인 시책이다. 이의 일환으로 전국 중고생 대상 현장 학습 코스 개발에 나서는 한편 전국 교육청 등 교육기관 대상 홍보물과 정음역사 알리기 홍보용 애니메이션(animation)도 제작한다.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이안 재현 행사 추진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제작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 ▲문화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올해도 힘을 쏟는다. 이 사업은 각종 공연 등을 통해 도시 활성화를 꾀하고 창조적인 문화 기획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매년 7억5천만 원씩 5년 간 총 37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올해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것. 유 시장은 "예비사업 및 지정 심의를 거쳐 5년 간 최대 200억원이 지원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의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 도시 정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객 유입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무주 발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